

최복수 위원장: 운영위원회 분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분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지역적 분배를 고려하고 있음을 안내하다. 이번 구성원의 특성으로 공익단체 추천에 해당하는 분으로 구의2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위원님 추천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안내하다.

이번에 해촉되는 강성구위원과 오재순위원에게 인사말을 권하다.

강성구 위원: 광장복지관은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두 번째로 지은 복지관이며 과거에는 밖에서 보이던 곳인데 현재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세월이 변함을 느끼고 있으며 처음 설립당시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에 대하여 잘 모르셔서 우려와 반대과정을 겪었지만 사회 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애정을 갖고 운영하여 주어 지금까지 잘 운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광장동권역은 광진구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교육·사회적 만족감 등의 수준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복지사업을 실천하고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다. 건실하고 깨끗하며 이직율이 가장 낮은 기관이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기관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다. 지금과 같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하다.

오재순 위원: 2014년부터 운영위원을 시작하면서 복지관과 인연을 갖게 되었으나 이번 개인 사정에 의하여 사임을 하는 부분에 아쉬움을 표현하다. 광장복지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좋았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함을 약속하다.

김경집 위원: 서비스제공팀 직원들이 1년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풀어낸 사례집 2017 서비스제공팀 실천이야기 “만나는 이는 달라도 뜻은 하나”를 안내하다.

6. 폐회

최복수 위원장이 12:45에 2018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 폐회를 선포하다.

2018. 6. 28